

영화 보고 공연 하고 책 읽는

문화 아지트



살아 남은 자를 위한 위로

광주시립합창단, 19일 브람스 '독일 레퀴엠'



광주시립합창단(상임지휘자 임한규)이 슬픔의 치유와 함께 새로운 희망을 전하는 브람스의 '독일 레퀴엠'을 공연한다. 19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예회관 대극장.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는 음악인 '레퀴엠'은 가톨릭 교회의 미사 전례를 위한 곡으로 대개 라틴어로 가사가 적혀 있다. 이번에 공연하는 '독일 레퀴엠'은 브람스 자신이 독일 성경에서 가사를 발췌해 독일어 가사로 이뤄진 게 특징이다. 기존 '레퀴엠'들이 죽은 자를 위로하는 것인데 반해 '독일 레퀴엠'은 남겨진 자, 살아 남은 자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있다.

모두 7곡으로 구성된 작품은 창조주의 전능, 인생의 무상, 심판의 공포, 죽음의 운명, 위안, 남은 자의 슬픔, 그리고 부활의 희망을 다룬다.

광주시립합창단이 처음 선보이는 레퍼토리로 원래 합창과 오케스트라를 위해 작곡된 작품이지만 이번 공연에서는 두 대의 피아노 협연으로 만날 수 있다. 피아니스트 문현옥(전남대 교수), 조현수(명지대 교수), 바리톤 임해철(호산대 교수), 소프라노 박미자(이화여대 교수)씨가 협연한다. 티켓 가격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45. /김미은기자 mekim@



아트카페 '카시오페아'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콘서트와 영화감상, 사진전 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가 흐르는 공간

6 광주 운암동 '카시오페아'

외진 골목길 카페 입소문 타고 북적
매월 영화보는 날·月 2회 독서모임
사진전·콘서트·벼룩시장 등 다채
1000여권 독서 공간 '또다른 쉼터'



음악과 영화, 사진, 책을 사랑하는 이들의 문화 공간 '카시오페아'는 단순한 카페라기보다는 문화를 공유하고픈 이들이 찾는 아지트다.

광주 운암동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 않은 다소 외진 골목길에 들어선 카페는 그래서인지 단골이 더 많다. 한 번 왔었던 이들이 친구와 함께 오고, 또 다른 지인을 데려오면서 찾는 이들이 늘고 있다.

카시오페아가 처음 문을 연 건 지난 2009년 가을. 새주인을 찾는다는 소식을 접한 김재원(38)·이유정(37)씨 부부는 그동안 자신들이 계획했던 아트카페를 실현시키고자 했다.

"군계 닫힌 철문을 열어보니 넓은 창문으로 들어온 햇살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처음 느꼈던 그 느낌을 많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서 문을 연 게 벌써 5년 가까이 되어가네요."(이유정씨)

문패를 따라 계단을 오르니 군계 닫힌 푸른빛의 철문이 발길을 막는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보니 판 세상이다. 커다란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따사로운 햇빛과 공간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아기자기한 소품들, 미니 도서관을 방불케 하는 방대한 분량의 책까지, 며칠이고 이곳에 놀러왔어야 하더라도 심심하지 않을 듯했다.

카페 이름은 이씨의 아이디어였다. 미하엘 엔데의 동화소설 '모모'에 나오는 욕지거버이 '카시오페아'의 이름을 따왔다. 거북이 카시오페아가 모모에게 길을 알려주고 위로를 주었듯, 카페 '카시오페아'도 이곳을 찾는 이들에게 위안을 주고 싶다는 생각에서였다.

이곳에도 모모의 친구 욕지거버이 '뚜뚜'가 카페를 찾는 이들의 눈을 즐겁게 해준다.

'카시오페아'는 문화를 즐기고 공유하는 공간이다. 영화를 보고 공연을 감상하고 책을 읽으며 사색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카시오페아'의 대표적인 문화 프로그램은 정기적으로 이뤄지는 콘서트. 손님이 왔던 이들이 기

타를 잡고 피아노를 치며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가 입소문이 나면서 '카시오페아' 무대에 서고 싶어하는 뮤지션들이 많아졌다. 오는 21일에는 재즈공연이 예정돼 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은 영화를 보는 날이다. "처음에는 예술적인 영화를 주로 봤어요. 그러다보니 관객수가 줄더라구요. 지금은 재미까지 더해 장르 상관없이 상영작을 고르고 있어요." 김씨는 많은 이들이 찾아와 함께 공유 할 수 있는 공간을 추구한다.

사진전도 열린다. 카페 한 쪽이 전시를 할 수 있도록 인테리어가 꾸며져 있다. 개인 전시회나 동호회들의 전시도 간혹 진행된다.

매월 두차례 진행되는 '타인의 취향'은 독서모임이다. 김씨를 포함해 12~13명의 회원이 모여 책을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다. 한번 모이면 3~4시간씩 토론을 벌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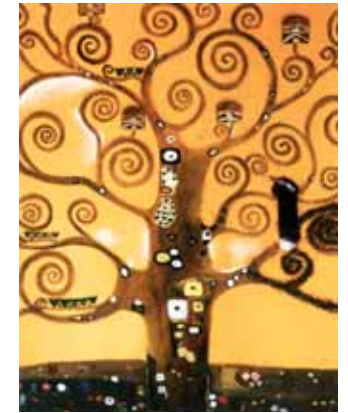
올해부터는 벼룩시장을 추가했다. 생활용품부터 책이나 CD 등 문화용품까지 카페와 앞마당을 이용해 자신들만의 미니 가게를 오픈할 수 있다. 4월에 한차례 진행해 호응을 얻은 '카시오페아'는 7월 둘째주 일요일 다시 한 번 '모모 벼룩시장' 문을 연다.

공연을 하지 않을 때의 '카시오페아'는 두 공간으로 분리된다. 가운데 유리문을 닫아 놓으면 카페 저편은 영락없는 도서관이다. 족히 1000여권을 훌쩍 넘는 책이 가득한 이곳은 지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손님들을 피해 조용히 책을 읽고 싶어하는 이들을 위한 세심한 배려다.

카페에서 진행되는 모든 프로그램은 카페를 방문해 연락처를 남겨놓은 이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전에 알려준다. 공연은 대부분 무료 관람이지만 간혹 대관을 하는 경우 유료로 진행하기도 한다. 문의 062-511-3558. 인터넷 카페(www.cafecasiopea.com).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내 안의 클림트

김정희전 19일까지 원 갤러리



'생명의 나무'

원 갤러리에서 오는 19일까지 김정희씨의 개인전 '내 안의 클림트'가 열린다.

김씨는 이번 전시에서 구스타프 클림트(1862~1918)에 대한 연구를 내면화해 재해석한 결과물들을 선보인다.

작가는 여성과 장식성에 접근, 패턴과 색채라는 장식의 기본 요소가 어떻게 회화적 장치가 되는지를 보여준다. 또 클림트의 작품이 지니고 있는 장식성의 미적 변용을 시도한다.

김씨 작품에서 돋보이는 소재는 발(髮)이다. 작가는 발을 가지고 다양한 색을 만들고, 유화물감과 함께 평면 캔버스 위에 황금빛 섬광 등 아름다운 색채들을 풀어놓는다.

김씨는 전남대에서 회화를 전공했으며, '클림트 회화에서의 장식성의 미적 변용과 그 특성에 관한 연구'로 조선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문의 062-222-654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2주년 국제보청기

www.kjhr.com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본점 062)227-9940	충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80)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 ✓ 첨단 디지털 기술로 필요한 소리만 **똑똑하게 들립니다.**
- ✓ 착용시 아주 작은 사이즈로 **거부감이 없습니다.**
- ✓ 많은 고객과 상품관리로 **가격이 부담없습니다.**

특허 제10-1097784호
특허 제10-0562035호
특허 제10-0548189호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방수가 2~3년만 가면 된다고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20년은 가는데!!

결로·곰팡이 단열까지 한번에~!

아트패션시트® 곰팡이 결로 단열시스템

완벽한 3중 단열로 결로·곰팡이 방지는 기본!

겨울에는 따뜻~ 여름에는 시원~ 탁월한 냉·난방비 절감효과 (20~30%)

새집증후군 예방효과, 명물디자인으로 바꿔주는 리모델링 효과까지!

이파엘지의 특허공법!!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는 환경과 소비자를 위한
저탄소 녹색(Green)환경을 추구합니다.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대리점
IPALG (062) 511-0444
H.P 010-6603-0405

목포대리점 T.(061) 284-0485
여수대리점 T.(061) 683-0485
순천대리점 T.(061) 726-0482
광양대리점 T.(061) 795-0485

www.IPALG.co.kr
또는 이파엘지.kr